

한의학대학 학생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한의대생 인식도 연구 - 1개 한의학대학을 중심으로 -

소의지¹⁾ · 목태영¹⁾ · 박부창¹⁾ · 배지용¹⁾ · 이지영¹⁾ · 이현호¹⁾ · 채지원¹⁾ · 황성호¹⁾
박선영²⁾ · 조학준³⁾ · 이주아⁴⁾ · 박정수⁵⁾ · 김영지⁶⁾ · 성현경⁷⁾ · 공경환⁶⁾ · 고희연⁶⁾*

¹⁾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²⁾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³⁾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과학교실, ⁴⁾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반연구부
⁵⁾ 한국보건 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⁶⁾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내과학교실
⁷⁾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소아과교실

Survey Research about Student Support Programs In Korean Medicine College

Ui-Ji So¹⁾, Tae-Young Mok¹⁾, Bu-Chang Park¹⁾, Ji-Yong Bae¹⁾, Ji-Young Lee¹⁾, Hyun-Ho Lee¹⁾,
Ji-Won Chae¹⁾, Sung-Ho Hwang¹⁾, Sun Young Park²⁾, Hak Jun Jo³⁾, Ju Ah Lee⁴⁾, Jeong-Su Park⁵⁾,
Young-Ji Kim⁶⁾, Hyun-Kyung Sung⁷⁾, Kyung-Hwan Kong⁶⁾ & Ho-Yeon Go⁶⁾*

¹⁾ Dep. College of Korean Medicine, Semyung University
²⁾ Dep of Physiology, College of Korean Medicine, Semyung University
³⁾ Dept. of Korean Medicine Classics & Medical History, Semyung University
⁴⁾ KM fundamental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⁵⁾ Division for New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⁶⁾ Dep. of Korean Int. Med, College of Korean Medicine, Semyung University
⁷⁾ Dep. of Korean pediatr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Semyung University

Abstract

Background and objectives : Student support programs in Korean Medicine (KM) college have been not much activated as compared to other colleges. So, this research is aim to offer a baseline data to plan and run any kind of student support programs by understanding Korean Medicine students' preference and satisfaction.

Methods : The survey was taken for 4 weeks from 2nd may 2016 to 27th may 2016, asking 162 out of a total of 255 students from 1st grade to 6th grade (pre-med to med).

3 Korean medicine doctors and 8 general students in Korean medicine college made the questionnaire by reviewing and modifying used questionnaire for student support programs. It consists of 13 questions (3 question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10 questions of overall awareness about student support programs).

Results : 'Advanced clinical training course' was the most preferred with 23.4% among 13 different student support programs when multiple voting was allowed. 'Chinese Medicine college tour' got 21.6%, and 'Major training in Chinese Medicine college (for 17 days)' followed next with 19.4%. Expected satisfaction score to student support programs was 7.30 on average out of 10.

• 접수 : 2016년 11월 21일 • 수정접수 : 2016년 12월 9일 • 채택 : 2016년 12월 12일

*교신저자 : 고희연 충북 충주시 상방4길 63 세명대학교충주한방병원 한방내과

전화 : 043-841-1731, 팩스 : 043-856-1731, 전자우편 : kohoyeon@gmail.com

Conclusions : Expected satisfaction to student support program was likely to be high. This research can be utilized as a significant assessment and analysis when developing new student support program for Korean Medicine college students.

Key words : Korean Medicine, College, Student, Support program, Survey

I. 서론

대학생은 인간 발달 단계 중에서 청소년 후기로서¹⁾,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중간 과정이며, 학교에서 직업세계로 이행을 준비하는 중요한 단계로, 탐색기에 해당하는 다²⁻⁴⁾. 대학생들은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자아 정체감을 확립해야하는 시기이므로⁵⁻⁸⁾ 각 대학은 대학생들이 각자의 발달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고,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각 대학별, 단과대학별로 해외 연수, 학부연구생, 진로 관련 연구 프로그램,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학생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상담적인 개입을 통해 진로결정이나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⁹⁾, 멘토링 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대학생활적응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 등이 있다¹⁰⁾.

현재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은 대부분 전공 분야에 국한되어 있으며, 타 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학의 학생지원 프로그램들은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과 연관성이 적거나 일정상 참여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한의과 학생들이 참여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의과대학의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한 기존 사례도 드물어 한의과대학 재학생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충분히 기획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한의과대학 및 대학원을 대상으로 교육 현황을 조사한 자료로는 ‘한국 한의과대학 교육현황¹¹⁾’과 ‘원탁토론 자료집¹²⁾’이 있으나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인증 평가(한국한의학 교육 평가원 시행)시 제출하는 대학 자체 보고서¹³⁾에는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각 대학 측에서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현재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반적인 자료 수집이 어려운 실정이며, 한

의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행된 기존 연구도 지금까지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 한의과대학의 학생 지원 프로그램 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한의과대학 재학생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한의과대학생을 위한 학생 지원 프로그램 기대 및 개선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자

1개 한의과대학 예과 1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전체 재학생 255명(2016학년도 기준) 중 동의서에 응답하고, 설문에 참석한 16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응답률은 약 63%였다. 응답한 162명 중 불성실한 응답자 12명은 제외하고, 15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2. 연구기간

2016년 5월 2일부터 2016년 5월 27일까지 4주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 설문지

설문지는 ‘4년제 대학교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재학생의 인식 연구¹⁴⁾’에서 이용한 설문지를 한의사 3명과 한의과 대학생 8명이 검토, 수정하여 만들었다. 설문 문항은 총 13문항으로, 인구학적 특성 3문항,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문항을 구성하기 위하여 전국 한의과대학 및 대학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였고 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은 전국 한의과대학의 학과사무실 및 학생회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조사 결과 2015학년 기준 전국 11개 한의과대학 및 1개의 전문대학원 중에서 해외 연수를 실시하는 학교는 4개, 기초의학교실 학생조교를 운영하는 학교는 5개, 진로 관련 연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학교는 1개 학교였다.

4. 자료 수집 방법

본교 한의과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설문 URL을 문자와 SNS로 전달하여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종이 설문지가 아닌 온라인 상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웹사이트의 동의서 항목에서 ‘동의한다’ 항목에 체크를 해야 본 설문지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연구동의서를 취득하였다. 본 설문 대상 한의과대학 소속이 아닌 제3자가 자료를 관리하였다.

5. 윤리적 문제

세명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IRB를 통과한 후 연구를 실시하였다.

승인번호는 SMU-2016-03-002-01이다.

6.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tatistical program for social science(SPSS) 18.0 for Window를 이용하였다. 연속형 변수는 mean±standard deviation(SD)로 표시하였고, 명목형 변수는 number(%)로 표시하였다. 명목변수 간의 연관성 검증을 위하여 Chi-square test를 사용하였고, 독립변수 3군 이상과 연속변수의 연관성 검증을 위하여 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였다. p-value가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으로 간주하였다.

III. 결 과

1.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징

한의과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와 동의서에 모두 응답한 162명 중 성별, 나이, 학년 중 하나라도 응답하지 않은 12명은 제외하였다. 총 150명 중 성별로 남자가 58.6%, 여자가 41.3%였다. 학년별로는 예과 1,2학년 33.3%, 본과 1,2학년 26.6%, 본과 3,4학년 40%로 고학년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 학생지원 프로그램 정보 알아보는 경로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교내 포스터 및 현수막을 통해 알아보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렇지만, 한번도 관심을 갖고 알아본 적이 없는 경우가 31.4%로 가장 많이 조사되었다.

3. 한의과대학 학생 지원 프로그램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한의과대학에서 기존에 시행했던 프로그램 6가지와, 타 한의과대학에서 2015년 기준 시행 중이었던 학생 지원 프로그램 7가지 중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중복 선택하도록 하였다. 중단되었던 학생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는 ‘심화 실습’이 23.4%로 가장 선호되었으며, ‘중의과대학 참관’이 21.6%로 두 번째로 높았다. ‘임상시험 교육’이 16.9%로 세 번째로 높았다. 한편, 타 한의과대학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 중에서는 ‘중의과대학 전공 연수(17일 프로그램)’가 19.4%로 가장 높았고, ‘중의학대학 교환 학생(1년 프로그램)’, ‘학생조교 및 연구원’이 각각 17.8%, 16.1%로 그 뒤를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rs

		Gender		Total
		Male	Female	
Grade	1st-2nd grade student	30(20,0)	20(13,3)	50(33,3)
	3rd-4th grade student	23(15,3)	17(11,3)	40(26,6)
	5th-6th grade student	35(23,3)	25(16,6)	60(40,0)
Total		88(58,6)	62(41,3)	15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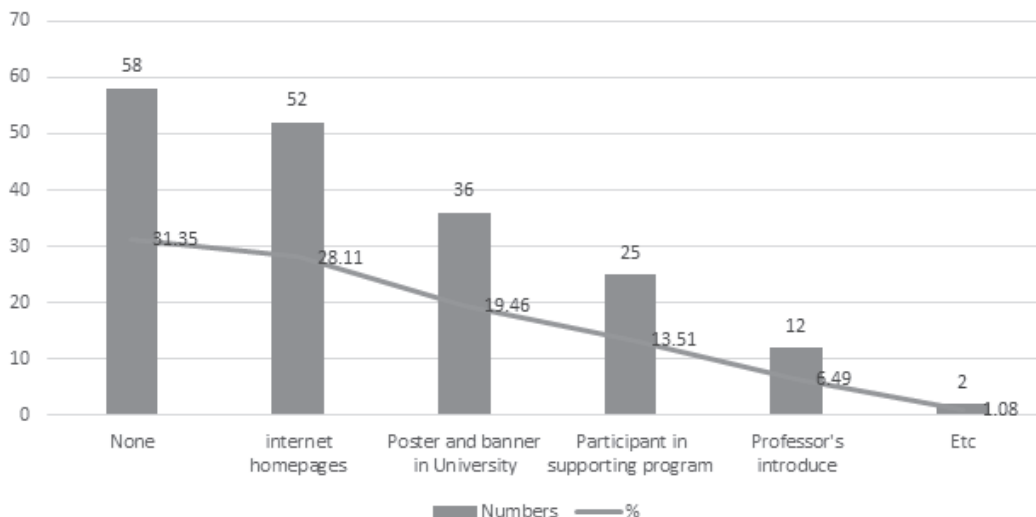


Fig. 1. Knowledge Pathway for Student Supporting Program

Table 2. Preference of Student Supporting Program in College of Korean Medicine

Variables		1st-2nd grade student	3rd-4th grade student	5th-6th grade student	Total	P value
Operated support program	Deep clinical training (n=90)	39(43.3)	26(28.8)	25(27.7)	90(23.4)	0.000*
	Visit Chinese medical school (n=83)	24(28.9)	22(26.5)	37(44.5)	83(21.6)	0.356
	Training about clinical trials (n=65)	28(43.0)	19(29.2)	18(27.6)	65(16.9)	0.019*
	Language training (n=60)	16(26.6)	19(31.6)	25(41.6)	60(15.6)	0.310
	Writing research paper (n=45)	11(24.4)	15(33.3)	19(42.2)	45(11.7)	0.263
	Medical services (n=40)	11(27.5)	15(37.5)	14(35.0)	40(10.4)	0.192
Not operated support program	Major training at Chinese medical school (n=71)	26(36.6)	17(23.9)	28(39.4)	71(19.4)	0.663
	Exchange student to Chinese medical school (n=65)	23(35.3)	17(26.1)	25(38.4)	65(17.8)	0.894
	Student researcher or assistant (n=59)	27(45.7)	14(23.7)	18(30.5)	59(16.1)	0.030*
	Clinical training at Chinese medical school (n=55)	17(30.9)	16(29.0)	22(40.0)	55(15.0)	0.842
	Experience program to Chinese medical school (n=46)	17(36.9)	11(23.9)	18(39.1)	46(12.6)	0.794
	Student researcher (n=38)	13(34.2)	13(34.2)	12(31.5)	38(10.4)	0.368
	Research program to students (n=31)	11(35.4)	7(22.5)	13(41.9)	31(8.4)	0.846

P value calculated by Chi-square test. Values are N(%)

이었다. 전체적으로는 ‘심화 실습’, ‘중의대전학’, ‘중의 학대학전공연수(17일)’가 각각 1,2,3위를 차지하였다. 특히, ‘심화 실습’, ‘임상시험교육’, ‘학생조교 및 연구원’ 항목에서 학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4. 진로선호에 따른 학생 지원 프로그램 선호도

설문조사에 대답한 진로선택에 따른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는 다음 Table 3과 같았다. 공통적으로 임상시험에 대한 교육, 의료봉사, 중의과대학 전공연수, 어학연수 등의 프로그램 선호도가 높았으며 이

를 제외하고 병원수련을 선호한 학생들은 논문작성, 학생 연구원, 중국대학 탐방프로그램 순으로 선호했고 일반 한의원 부원장 및 개원을 선택한 학생은 중의과대학 교환학생, 논문작성, 중국대학 탐방프로그램 순으로, 석박사과정 지망생은 논문작성, 중국대학 탐방 순으로 선호하였다. 또한 한의학연구원 지망생은 학생연구원, 중국대학 탐방 순으로, 공공 보건 및 공공의료 쪽을 지망한 학생은 논문작성, 중의과대학 참관, 학생연구 프로그램 등을 선호하였고, 복수면허를 지망한 학생은 중국대학 탐방프로그램, 교환학생 프로그램, 학생연구 프로그램 등을 선호하였으며 기타의 나머지 학생들은 중 의과대학 참관, 논문작성, 중의과대학 교환학생 등을

Table 3. Preference of Student Supporting Program according to direction preference

	Traing at Hospital	Working at local clinic	Studying doctor's & master's course	Researcher in Korean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Working in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Acquisition dual license	Etc
Deep clinical training	23	27	5	3	5	5	0
Visit Chinese medical school	16	27	14	4	9	6	5
Training about clinical trials	40	62	20	7	10	12	3
Language training	28	43	18	8	9	12	2
Writing research paper	24	44	15	4	11	4	4
Medical services	37	63	18	7	16	6	4
Major training at Chinese medical school	27	48	18	6	11	7	5
Exchange student to Chinese medical school	22	46	14	3	7	8	4
Student researcher or assistant	24	41	11	6	7	6	3
Clinical training at Chinese medical school	19	37	10	3	4	3	3
Experience program to Chinese medical school	24	42	12	6	7	10	2
Student researcher in MRC	14	24	6	5	4	5	0
Research program to students	15	27	12	5	8	7	1

선호하였다.

5. 학생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한의과 학생들의 기대목표

한의과대학 학생들은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을 가장 크게 기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다양한 진료 가능성 탐색 등을 기대하고 있었다.

6.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한의과 학생들의 기대 만족도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 만족도는 10점 중 평균 7.30점이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7.26점 여자가 7.34점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예과 1,2학년이 7.50 점, 본과 1,2학년이 6.72점, 본과 3,4학년이 7.5점으로 비교적 일정한 분포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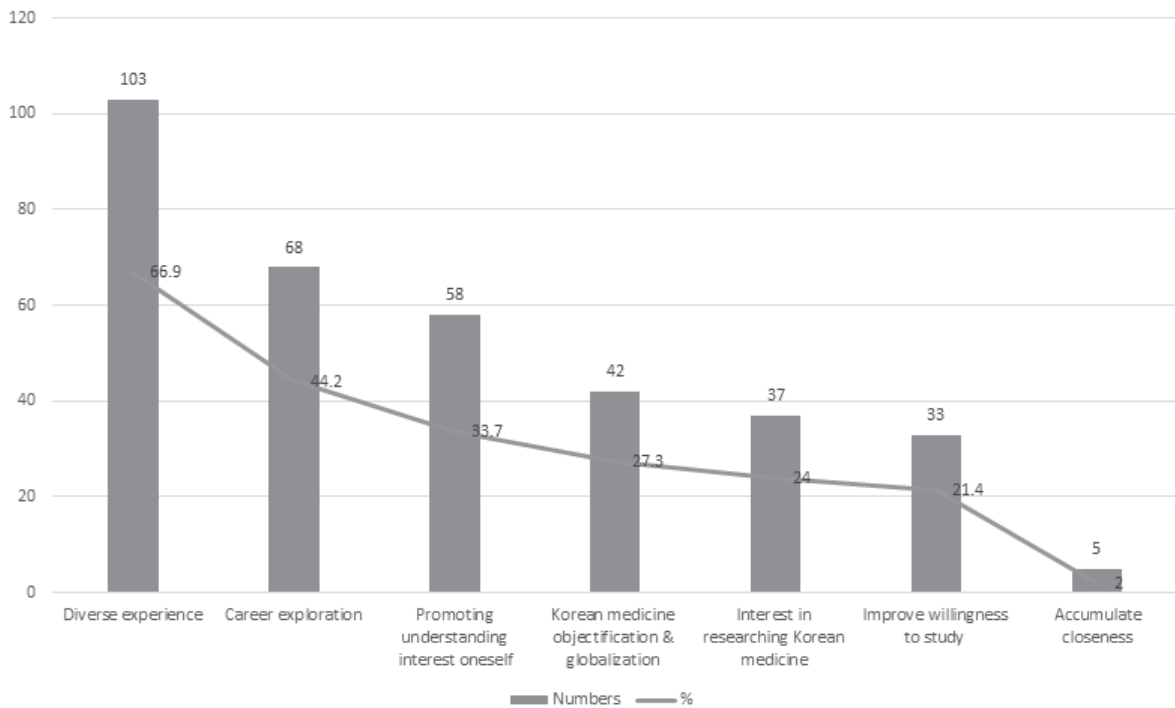


Fig. 2. Expection for Student Supporting Program.

Table 4. Expected Effect of Student Supporting Programs in College of Korean Medicine

		Values	P value
Gender	Male	7.26±1.991	0.811*
	Female	7.34±1.679	
Grade	1st-2nd grade student	7.50±1.568	0.078**
	3rd-4th grade student	6.72±2.038	
	5th-6th grade student	7.50±1.918	
Total		7.30±1.862	

Values are means±standard deviation.

* value calculated by Student t-test.

** value calculated by ANOVA.

IV. 고 찰

학생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부생에게 다양한 경험을 고취시켜 장차 취업 및 진로탐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칭하며,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학교마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 ‘학생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의 이름으로 활발히 시행 되어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¹⁵⁾. 국내의 연구자료를 찾아보면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연구¹⁶⁾, 청각장애 대학생을 위한 진로 상담연구¹⁷⁾, 지체장애 학생을 위한 연구¹⁸⁾ 등이 추가 되고 있으며, 자기 효능감 증진¹⁹⁾, 직업 소양능력 진단 및 지원 프로그램 등 취업지원²⁰⁾을 위한 연구 등이 있다. 이렇듯 다양한 연구가 있지만, 한의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는 기존에 없었다.

전국 한의과대학 및 대학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의 경우, ‘한국 한의과대학 교육협의회 한국 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 간행지’, ‘2014 전국 한의과대학 학생회 연합의 원탁토론 자료집’등이 있으나¹⁻²⁾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한의과대학 내에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적이 없고, 관련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재학생들의 요구가 어떠한지 파악할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해당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한의과대학의 학생 지원 프로그램 실태를 조사하였고, 이를 토대로 일개 한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재학생들의 인식을 파악하였다.

설문 조사 응답자는 재학생 255명 중 162명이었으며, 이 중 성별, 나이, 학년 중 하나라도 응답하지 않은 12명은 제외하였다. 총 150명의 응답자 중 남자는 58.6%, 여자는 41.3%였으며, 학년별로는 예과 1.2학년 33.3%, 본과 1,2학년 26.6%, 본과 3,4학년 40%로 응답자 간의 성별, 학년별 분포는 고른 편이었다. 특히, 고학년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한의과대학을 다니면서 느꼈던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상당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재학생들이 졸업 후 가장 선호하는 진로는 ‘한의원 개원 또는 부원장’이 67.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한방병원 수련의’가 44.2%, ‘한의학 석사, 박사과정’이 21.2%로 나타났다. 반면 ‘한의학연구원 연구원’은 9%로 가장 저조했고, ‘보건 행정직 및 보건 의료직’

도 13.5%로 낮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임상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연구에 대한 선호도가 낮았다. 한편, 진로를 위해 재학생들은 86.7% ‘전공 공부’에만 매진하고 있었고, ‘어학능력 배양’은 18%, ‘학회 세미나 참가’는 10% 정도로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진로 및 취업을 위해 ‘인턴십 및 연수’를 준비하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응답자 중 69.9% 본교 한의과대학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부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89.1%에서 관련 프로그램이 개설된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참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선호도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차원의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교에는 이미 여러 학생 지원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나 대부분이 타 학과 특성에 맞춰진 관계로 이에 대한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만족도와 참여율은 평균 4점으로 매우 낮았으며, 8~10점의 만족도를 가진 학생은 7.7%에 불과했다. 본과 1,2학년의 경우, 평균 만족도가 3.70점으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본과 과정 진입 후 주당 40시간에 육박하는 강의를 소화하느라 기존의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한편,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되었던 다양한 한의학 관련 학생 지원 프로그램들은 현재 모두 중단된 상태이며, 응답자 중 37.7%는 본교 한의과대학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것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관련 프로그램의 부재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기존의 타 학과 특성에 맞춰진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낮은 만족도와 불만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에 총 13가지 한의학 관련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본교에서 시행되다 중단된 프로그램 중에는 ‘한방병원 수준의 심화된 실습’이 23.4%로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중의과 대학 견학’이 21.6%, ‘임상시험교육’이 16.9%로 그 다음으로 선호되었다. 한편, 타 한의과대학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 중에서는 ‘중의학 대학 전공연수(17일 프로그램)’가 19.4%로 가장 선호되었고, ‘중의학 대학 교환학생(1년 프로그램)’이 17.8%, ‘학생조교 및 연구원’이 16.1%로 뒤따랐다. 이와 같이 한의과대학 학생들은 교내의 기존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공과 연관성이 적어 참여도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한방병원 수준의 심화된 실습’, ‘임상시험교육’, ‘학생조교 및 연구원’ 항목은 p-value가 0.05 이하로 학년별 응답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방병원 수준의 심화된 실습’의 경우 예과 1,2학년에서 가장 높았고, ‘임상시험교육’의 경우도 예과 1,2학년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 ‘학생조교 및 연구원’의 경우 예과 1,2학년과 본과 3,4학년 간 학년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로써 한의과대학 학년별 맞춤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대두되었고, 학년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항목 또한 모든 학년에서 고루 원하는 학생 지원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한의학과 특성에 맞는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학생 지원 프로그램들에 대해 참여하는 목적으로는 ‘학부시절의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하여’가 66.9%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다양한 진로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하여’가 44.2%로 2순위를 차지했다. 또한, 학생들은 학부생 시절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 기대되는 만족도로 10점 중 평균 7.32점을 예상했으며 이는 향후 진로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본과 1,2학년 응답자들의 평균 기대 만족도는 6.72점으로 낮았는데, 이 역시 기존의 타 학과 특성에만 맞춘 학생 지원 프로그램과 중단된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경험해보지 못한 프로그램에 대한 경계와 교과과정 외의 것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은 경향도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설문조사에 대답한 진로선택에 따른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공통적으로 임상시험에 대한 교육, 의료봉사, 중의과대학 전공연수, 어학연수 등의 프로그램 선호도가 높았으며 이를 제외하고 병원수련을 선호한 학생들은 논문작성, 학생 연구원, 중국대학 탐방프로그램 순으로 선호했고 일반 한의원 부원장 및 개원을 선택한 학생은 중의과대학 교환학생, 논문작성, 중국대학 탐방프로그램 순으로, 석박사과정 지망생은 논문작성, 중국대학 탐방 순으로 선호하였다. 또한 한의학연구원 지망생은 학생연구원, 중국대학 탐방 순으로, 공공 보건 및 공공의료 쪽을 지망한 학생은 논문작성, 중의과대학 참관, 학생연구 프로그램 등을 선호하였고, 복수면허를 지망한 학생은 중국대학 탐방 프로그램, 교환학생 프로그램, 학생연구 프로그램 등을 선호하였으며 기타의 나머지 학생들은 중의과대학 참관, 논문작성, 중의과대학 교환학생 등을 선호하였는데 이를 통해 병원수련이나 연구직종과 보건직을 지망하는 학생이나 일반 한의원을 개원하고자 하는 학생들 모두

임상시험에 대한 교육이나, 논문작성 등 연구 직종에 연관되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지망하는 직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는 지망하는 직종에 대한 선호도와 선호하는 프로그램 모두 중복 대답이 가능하여 통계처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는 특정 한의과대학 한 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연구이며, 전수 조사되지 않은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기에 일반화 할 수 없다. 또한, 단면조사연구이기 때문에 인과성 및 시간에 따른 추이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전 학년 대상 설문조사 연구이며 한의과대학 학생들이 참여하였다는 장점이 있다.

한의과대학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한의대생들의 선호도와 만족도 및 관련 기타사항들은 학교 차원의 학생 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기초자료로써 본 연구는 향후 한의과대학 학생 지원 프로그램 도입 검토 시 의미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학생지원프로그램이란 결국 학문에 대한 만족도를 높게 되며, 직업이나 진로 선택시 적응력을 높여주며, 학교과 학과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지원프로그램은 향후 한의과대학의 전반적인 교과과정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현재 한의대 교과과정은 한의사의 진료업무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이런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한의학에 특성에 맞게, 학년별 맞춤수업, 성별, 연령별 맞춤 지원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 프로그램을 통하여 많은 한의 연구자를 양성하고, 의료행정 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한의 의료행정 전문가를 양성하고, 중의학이나 Kampo 의학, 보완대체의학 체험과 견학 프로그램을 통하여 글로벌한 한의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V. 결론

최근 몇 년 간 한의과대학 학생 지원 프로그램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 또는 만족도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기존 연구가 드물었기에 재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관련 프로그램 도입 시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이 연구를 실시하였다.

1. 한의과대학 학생들은 학생 지원 프로그램이 개설된 다면 대부분 참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생 지원 프로그램은 ‘심화 실습’, ‘중의대전학’과 ‘중의약대학 해외전공연수(17일)’로 나타났다.
3. 기존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새롭게 개설될 프로그램들에 대한 기대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한의과대학 졸업생의 진로 및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신규 한의과대학 학생 지원 프로그램 개발 시 의미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의 말씀

본 연구는 2016년도 세명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았기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참고문헌

1. Sullivan HS.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1953. p.93
2. Oh CS, Lee BH. Factors Influencing Career Decision Making in Adolescents and female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05;12(3):93-113.
3. Lee KH. Differences Between Four Types of Career Choice in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Indecision Factor.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003;11(1):13-21.
4. SUPER DE.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980;16:282-298.
5. Cho MS, Choi KS. A Model Testing on Ego-Identity,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Career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Late Adolescence.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07;8(3):1085-1099
6. Kim BS, Son MA. The Effects on Career Modeling Program for Career Self-efficacy. The J of Career Educ Res. 2005;18(2):172-198.
7. Kim M, Choi JY. A Study on Development of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Improvement of Undergraduate Students' Career Self-Efficacy and Its Effec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6;23(5):123-151
8. Erikson EH.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1963. p. 445
9. 조성연, 문미란. 성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개발 및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2006;18(4):731-48.
10. 이성희. 멘토링프로그램이 3년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간호행정학회지. 2006;12(2):247-54.
11. 한국 한의과대학 학장 협의회. 한국 한의과대학 교육현황(2013-2014) 제 7집. 2014
12. 전국한의과대학 학생회 연합. 원탁토론 자료집. 2014
13.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자체평가 위원회.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2014년도 자체평가 보고서. 2014.
14. 권경만. 4년제 대학교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재학생의 인식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15. Sin HS, Min BC, Nam SK. Evaluating the Effect of the 'Government-funded Employment Support Program' on the Graduates' Employment Outcome. Asian Journal of Education. 2014;15(2):201-223.
16. 김진호. 장애대학생을 위한 교육지원프로그램 분석.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4;13(1):119-36.
17. 김민희, 최용용. 청각장애 대학생을 위한 진로집단 상담 프로그램 구성 및 효과성 연구 -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007;20(2):193-212.
18. 최용용, 박외자.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지체장애 대학생의 진로탐색활동, 진로자기효능감, 진로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육논단. 2008;8(1):

- 145-69.
19. 장옥희, 이상호. 대학생의 경력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인사관리연구. 2007;31(2):179-97.
20. 오만덕, 이승희. 대학생 직업소양능력 진단 및 지원 프로그램 적용:D 전문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1;11(4):497-506.

